

Ⅲ. 주요 경제 현안

1. 벤츠-크라이슬러의 합병

- (특징) 제조업 사상 최대의 합병이자 현금 유출이 없는 주식스왑 방식의 고수익 업체간 합병임. 이질적인 기업문화 등으로 합병 회사의 장래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님
- (배경 및 효과) 제품구성, 주력시장 등의 면에서 글로벌 경쟁력 구축을 추진하던 양사의 이해가 일치한 것이 합병의 배경이며, 중장기적으로 차기제품 공동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. 특히 소형차와 RV 개발에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며, 아시아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
- (세계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효과) 대형화를 위한 자동차업체간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, 부품업계의 재편을 촉진하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

□ 합병 경과 및 특징

- (경과) 지난 7일, 독일 최대 기업집단인 다임러-벤츠와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합병하여 '다임러 크라이슬러'의 출범을 공식 발표함
 - 아직 다임러-벤츠의 감독이사회와 양사 주주총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음
 - 새로이 설립되는 다임러-크라이슬러는 법적으로 독일기업으로 독일식 경영체제가 도입되며, 독일식 '노사 공동결정' 원칙을 따라야 함
- (특징 및 의의) 제조업 사상 최대 합병이자 고수익 업체간 합병
 - 합병 회사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제조업 분야 사상 최대 규모 합병
 - (고수익 업체간 합병) 이제까지 자동차업체간 합병은 대형 업체가 경영 애로에 봉착한 소규모 업체를 일방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었으나, 이번에는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 업체간 합병
 - (주식스왑 방식) 양사의 합병은 양사의 주식이 새로운 지주회사의 주식과 일정 비율로 교환됨으로써 현금 유출이 없는 주식스왑 방식으로 이루어짐
- (성패 전망)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질적 기업문화 통합의 어려움 때문에 거대기업간 합병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쉽지 않아, 낙관적인 것만은 아님

- 특히 독일식의 '노사 공동결정' 제도에 크라이슬러의 주주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

□ 합병의 배경 및 예상 효과

- **(배경)** 세계 자동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 구축을 추진하던 양사의 이해 관계가 일치
 - 세계 자동차시장은 전통적 세그먼트 및 업체간 구분이 점차 희석되고 있어서 전통적인 니치마켓 메이커나 특화업체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, 진출지역과 제품라인업 양면에서 이른바 全方位的 競爭에 돌입하고 있음
 - 세계 자동차업체들은 만성적인 과잉 설비와 이윤 압박으로 대형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
 - 벤츠는 양산차 및 미니밴 등 RV 분야의 기술/브랜드 확보 및 북미시장 확대 거점 확보, 크라이슬러는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자금력 및 고급 기술 확보 가능
- **(단기 비용 절감)** 제품구성, 생산입지, 브랜드 이미지 등의 이질성이 커서 단기적 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
 - 단기적인 직접적 비용 절감은 자재 조달의 통합 효과 정도임. 양사는 합병에 따른 비용 절감액이 98년 14억 달러, 향후 수년간 매년 30억 달러 정도에 이르고 발표하였으나, 이는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는 평가임
 - 당분간은 생산, 개발, 유통 모두 현재와 같이 2원 체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.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는 것은 차기 제품의 공동 개발이 이루어지고 기업문화적 통합이 안정화되는 5~6년 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함
- **(소형차 개발)** 합병 이후 공동개발의 1차 목표는 유럽지역을 겨냥한 경쟁력있는 소형차가 될 것이며, 이것이 합병의 가장 큰 시너지효과가 될 것으로 보임
 - 크라이슬러는 '일본차 킬러'라고 명명되었던 네온의 성공적인 출시를 통해 소형차 개발에서 일본 업체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과시한 바 있음. 네온의 공동 리엔지니어링 모델이 1차 작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함
 - 크라이슬러의 제품개발 효율성에 벤츠의 고급기술이 효과적으로 결합된다면, 일본차를 능가하는 경쟁력있는 소형차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
- **(아시아시장 공략 강화)** 새로운 소형차 개발을 통해 양사는 그동안 취약점이었던 아시아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벤츠는 아시아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만한 제품과 적합한 브랜드, 크라이슬러는 자금력이 부족했으나, 합병 이후 양사의 약점을 보완해 중저가 소형차를 중심으로 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
 - 현금 유출없는 합병으로 강력한 자금력을 보유하게 된 다임러 크라이슬러는 아시아 진출을 위해 일본 등 아시아 생산 거점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
 - 수익성 악화로 고전중인 닛산과 미쓰비시가 인수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
- **(RV시장 주도)** 성장성과 수익성 면에서 가장 유망한 RV(Recreational Vehicle) 분야에서 다임러 크라이슬러는 확실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관측됨
 - 미니밴, 지프 등 RV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 및 제품력을 보유한 크라이슬러에 벤츠의 고급 기술이 결합됨으로써 점차 고급화, 다기능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RV 시장 동향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

□ 세계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

- **(구조 개편)** 벤츠-크라이슬러의 합병은 기업규모 대형화를 위한 세계 자동차업체들의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임
 - 예상 인수 주체: GM, 포드, 다임러 크라이슬러, 폭스바겐, 도요타, 혼다
 - 예상 인수 대상 기업: 르노, 푸조, 피아트, 볼보 등 유럽 중위권 업체들과 일본의 중하위권 업체들(다임러 크라이슬러 합병 발표 직후 새로운 M&A에 대한 기대 심리로 유럽 중하위권 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급상승)
 - 인수합병 물결의 1차 타겟은 유럽과 일본의 중하위권 업체들이 될 것이며, 한국 업체 등 하위권 업체들은 1차 구조조정이 윤택을 드러내는 시점에서야 본격적 인수합병의 대상으로 고려될 것으로 전망됨
 - 인수합병되지 않더라도 비용 절감을 위한 업체간 전략적 제휴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임. 전략적 제휴의 공동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임
- **(부품업계의 구조 개편)** 완성차업체의 거대화는 부품업체들의 대형화, 새로운 납품거래 기회 획득을 둘러싼 경쟁을 강화시켜 부품업계 재편을 촉진시킬 것임

(김 건 kkim@hri.co.kr ☎724-4043, 정 진 우 jujeong@hri.co.kr ☎724-4041)